

“다종교사회와 원불교 지도자 교육”에 대한 논평

안 규 철

(전남대학교)

송병순 교수는 기조 강연 모두에서 우리 사회의 만성적 중병으로 “자기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 “동물적 요구 충족을 위해 허위적거리는 향락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조그만한 편익을 위해 사회다중의 피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삶의 방식(송병순)”에 대한 개탄은 어느 한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 된지 오래이다. “지금 우리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르는 점에서 상당한 중증에 이르고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인식 부재에 한없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 교통규칙 위반은 한계에 와 있고, 온통 나라가 쓰레기 냄새고, 자연훼손과 오염에 보도블럭은 꺾을 뺀 반점투성이고, 산야에는 고스톱에, 방뇨에, 쓰레기에, 싸움에, 고성방가에, 무질서에, 한번 쓰고 버리고, 쓰지도 않고 버리고… 온통 홍청망청이 습관화되고 말았다”는 지적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정범모, 1994: 422). 일반 서민의 생활양식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행태에도 적잖은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각계 각층의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슬픈 풍토병과 그 치유가 아쉽다는 정범모 교수의 지적에 공감한다. 정교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풍토병은 “권세 지향이 너무 강하고 의무 지향이 약하다”, “지위지향이 강하고 과업지향이 약하다”, “후계의 양성에 무관심하고 과업의 연속에 무관심하여 현존 지도자가 사라지면 무질서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만연한 사치를 근점으로, 폭악을 선량으로, 졸렬을 우아함으

로, 찰나적, 충동적 육신의 욕구를 영구적, 반성적, 영신적 만족으로 영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히 종교계, 종교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사찰이나 교회의 성직자나 수행자들에게서 듣고 보는 것은 세속의 자본주의적 냄새를 물씬 느끼게 한다. 가난하고 설움받는 자가 절이나 교회에서도 역시 소외되고 있다. 현금을 많은 내는 자가 우대되는가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도 돈이 중요하고 불타나 보살을 기쁘게 하는 것도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박선영, 1988)”라고 개탄하는 시론에 공감하며 절망을 느낀다. 오늘의 기조 강연에서도 한국의 종교는 ①세속화: 황금만능주의화 ②종교 간의 갈등 ③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행동 등으로 종교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종교가 사랑, 자비, 형제자매애, 관용, 용서, 화합, 구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인 일인지 “종교적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고방식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박선영, 1998).” “어쩌면 모든 종교가 자신들만의 진리에 대한 절대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립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각 종교의 여러 가지 다른 절대성에 대한 주장은 결국 다른 종파의 신념이나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가 자신의 신념에 철저할 때, 또는 교단의 발전이나 경제적 이해에 관심을 둘릴 때 그들 간의 대립이 표면에 떠오른다(고익진, 1998: 206).” 따라서 종교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그 공신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간의 대립을 완화, 해소하며 종교적 신앙인이 개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관용, 종교적 다원성에서 하나의 단일성을 파악, 체득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은 특히 종교지도자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선영 교수는 종교교육을 “종교의 교육”, “종교적 교육”,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논한 바 있다. 여기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의 교육을 뜻하고, 종교적 교육은 종교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 삶의 자세와 방식이 인간 교육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한 교육은 종교의 본질과 삶의 방식 및 이의 사회적 의의 등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다. 박교수의 구분(1996)은 종교지도자 교육상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

국 종교간 대립의 심화나 신앙인의 폐쇄적 사고는 “종교의 교육” 수준에만 머문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송병순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종교지도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편타당한 종교관의 형성”, “보편적 가치의 중시”,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인간주의”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는 송교수의 접근을 폭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원불교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리아타(自利利他)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 “초목금수도 연고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동포은)고 가르치고 있다. 대중사의 말씀에서도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지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대종경·성리품) 동원성(同源性), 동기성(同氣性), 동질성(同質性)을 가진 일원적 면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권 교수가 소개한 원불교 교역자 양성과정에서는 원불교 이외의 타종교의 이해를 위한 교과목 및 원불교학 인접학문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종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지식에 우선하여 탁월한 종교적 인격과 회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종교의 경전 또는 신도 교육이나 교역자 교육의 커리큘럼상에 깨끗하게 표언 명문되어 있는 교육이상이나 교육목적이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상에 제대로 내면화되고 있는가에 있다. 우리는 정부 수립 후 교육법에 “홍익인간”이라는 표언명문상의 교육이념을 내세웠지만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기인간”으로 흘러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상원, 1996: 82-85).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쉽게 접하는 “견인불발” “근검노작” “신의와 협동” 등 표언명문은 교육법, 국민교육헌장, 교육부 교육과정, 각급학교 교칙, 교훈, 급훈, 문교방침, 장학방침 등에서 수다한 표언명문의 교육이상, 교육목적, 교육목표 등을 내세워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행동결정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박상권 교수의 주제 발표에서 원불교의 지도자 교육 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강의실에서의 학문학습, 서원관 공동생활 중의 수련과 인성교육, 각종 실습을 통한 기능교육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끊임없는 종교적 신앙과 수행을 통하여 자신을 성숙시켜 나아가게 하는 체질화, 내면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명문

의 교육목적과 실제 교육간의 괴리를 없애려는 통찰의 결과로 이해된다.

송병순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종교지도자 교육에서 염려되는 사항으로 “성직자 지원과정의 지나친 다양화로 인한 성직자의 질적 차이”, “질 낮은 종교지도자의 배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원불교에서 교화(포교)를 담당하는 교무 양성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기간이 권장 사항인 예비근무 2년, 대학 4년, 대학원 2년으로 되어 있고, 2회의 자격고시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성 종교지도자의 재교육을 6계의 범위제도를 두어 독려하고 있다. 언급한 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은 송교수가 지적한 염려를 가지게 한다. 기조강연에서도 원불교의 경우는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상 고른 질적수준의 성직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송병순 교수는 종교지도자의 양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예비성직자 선발과 다양한 장학제도의 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상권 교수도 원불교의 교역자 양성과정에 나타나는 지원자 감소와 그에 따른 지원자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여 청소년들을 성직으로 유인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복지의 실현을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 박상권 교수는 주제 논문에서 미래의 종교계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성직의 길로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성직자에 대한 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한다. 박교수는 대개의 종교가 성직자들에게 희생적 봉사를 요구해왔고 사회의 인식도 당연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풍토가 그러한 희생을 타인에게 요구할지언정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이 풍조를 단지 세속적인 물량적 사고라거나 신성한 성직의 생계수단화라고 비난할 상황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토론자는 “현실적 사회풍토”상 어쩔 수 없이 박교수의 논의에 동조하면서도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씻어버리기 어렵다. 그것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아파트·백화점·한강 교량·고속도로·지하철 등의 부실공사, 유산을 노리는 효도, 판매고 올리려는 친절상훈, 지참금을 노리는 결혼, 점수 따려는 봉사 등 사회 도처에서 목격되는 목적도 의미도 윤리도 없는 수단주의·도구주의의 창궐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종교에서 찾고 종교계 지도자나 신앙인에게 權·富·貴·壽·色 등의 세속적 가치를 훨씬 초월하는 가치를 너무 많이 기대한 데서 연유한 실망감일지도 모른다. 다만 직업이 지니는 자아실현의 가치는 특히 종교지도

자에게 있어 경제가치, 출세 및 명예가치 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족하며 현실사회의 제반경향을 인정하고자 할뿐이다.

성공적인 지도자 여부를 평가는 척도로 정범모 교수(1994: 397-399)는 조직이 목적하는 바의 성취정도를 가늠하는 “생산성”, 성원 간 서로 공동체의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인화성”, 그 지도자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 자세, 관을 배우게 하는 “학습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같은 지도자의 역할 또는 평가에 대한 척도는 종교지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성공적인 종교지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단의 세력을 넓히고 널리 신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교단 내에 또는 신자간에 있을 수 있는 반목과 불화를, 분파와 파쟁을 조정하여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同이면서 不和하지 아니하고, 不同이면서 和하게 하며, 직접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수범·비wus·감복·감화를 통해서 신자나 비신자에게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신앙자세, 새로운 우주관·인생관·세계관·종교관을 지니게 해 주는 분이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익진(1998).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서울: 도서출판 이바지.
- 박선영(1998). “다종교 사회와 종교교육의 문제.” **종교교육소식 제 2호**.
- 박선영(1996).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 논문.
- 정범모(1994). **인간과 사회와 교육 I**.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정범모(1994). **인간과 사회와 교육 II**.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조상원(1996). **법이 뭇길래**. 서울: 현암사.